



점은 바다의 눈
면 그림 김민경

[교실 속 그림책 96] 검은 바다의 눈물

2017년 10월 16일 초판발행 2017-00096

| 지은이 | 김민경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7790-26-6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김민경과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머 리 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작가의 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나는 뉴스를 자주 살펴보게 되었다. 신문도 더욱 눈여겨보고 신문스크랩북을 만들기도 했다.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멀리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이 사건이 궁금해져서 나는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도서관에 가니 관련된 책도 있어서 빌려와서 읽어보았다. 좌절한 마을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름을 걷어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름 유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워서 고민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에 마블링 물감을 활용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친구랑 오후 늦은 시각까지 교실에 남아서 물감을 섞고, 마블링 무늬를 만들고, 종이에 찍어냈던 시간이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글을 쓰는 것도 좋았지만 그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마블링 물감은 기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으면서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낸다. 마블링 물감을 사용하면서 이 물감의 기름이 이렇게나 찝찝하고 독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해서 잘 지워지지도 않았다.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한 석 달 정도는 이 물감 냄새가 교실에서 빠지지 않았다. 물감도 이렇게 지독한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닷물 속에 부어졌으니 얼마나 끔찍했을까? 태안 앞바다의 백사장과 바위, 다시마와 물고기를 이렇게 지독한 물감이 뒤덮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다. 이걸 흡습제로 하나하나 닦았던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또 고생했을까.

이 책을 읽는 친구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 또한 그림책의 소재를 생각하면서 신문과 인터넷 뉴스, 평소 많이 읽는 CSI책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그림책이 나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남겨질까? 이 책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금처럼 귀한 바다, '금바다'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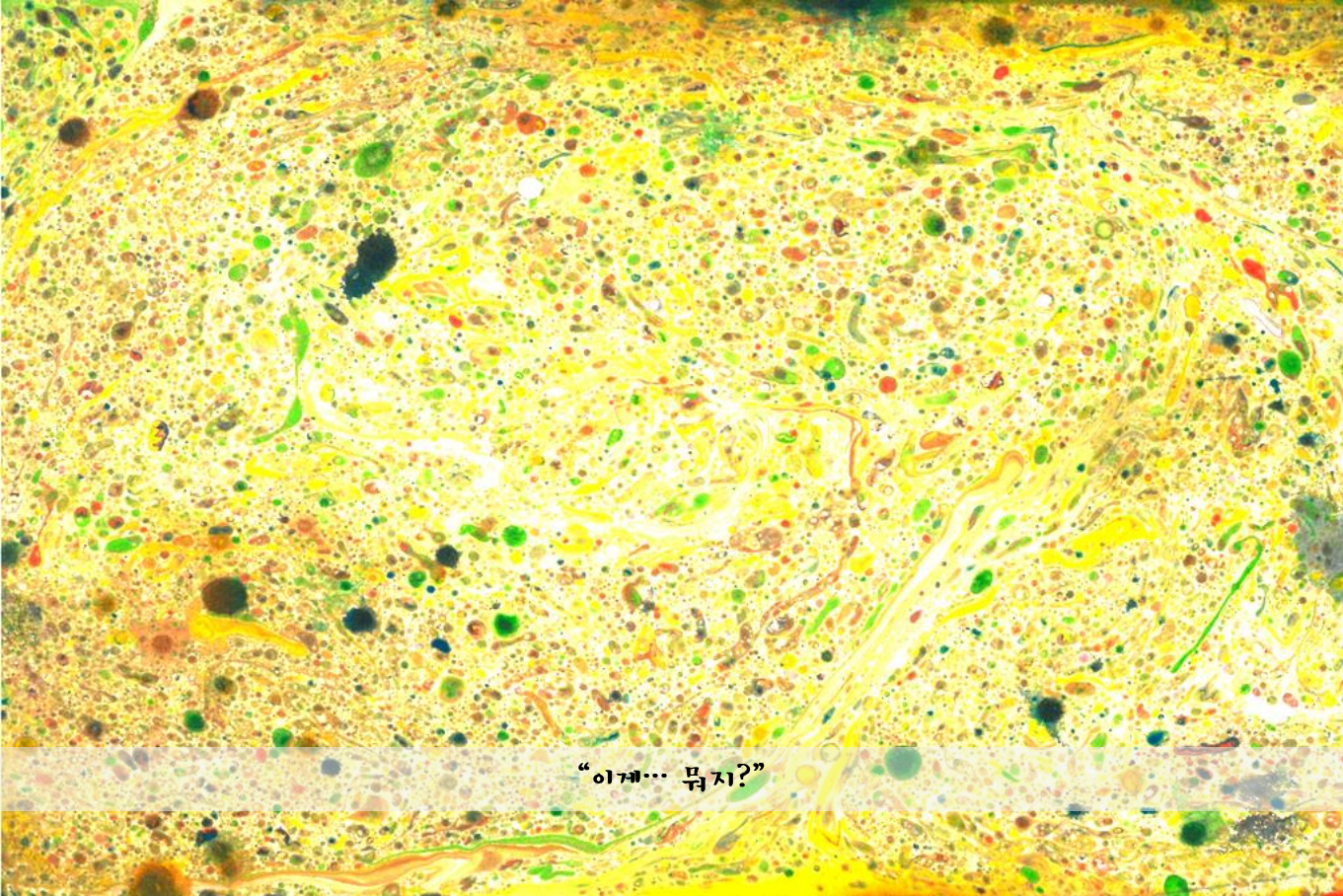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햇살이 비치면 황금빛으로 반짝이던 곳,



그곳에 낯설고 끈적끈적한 것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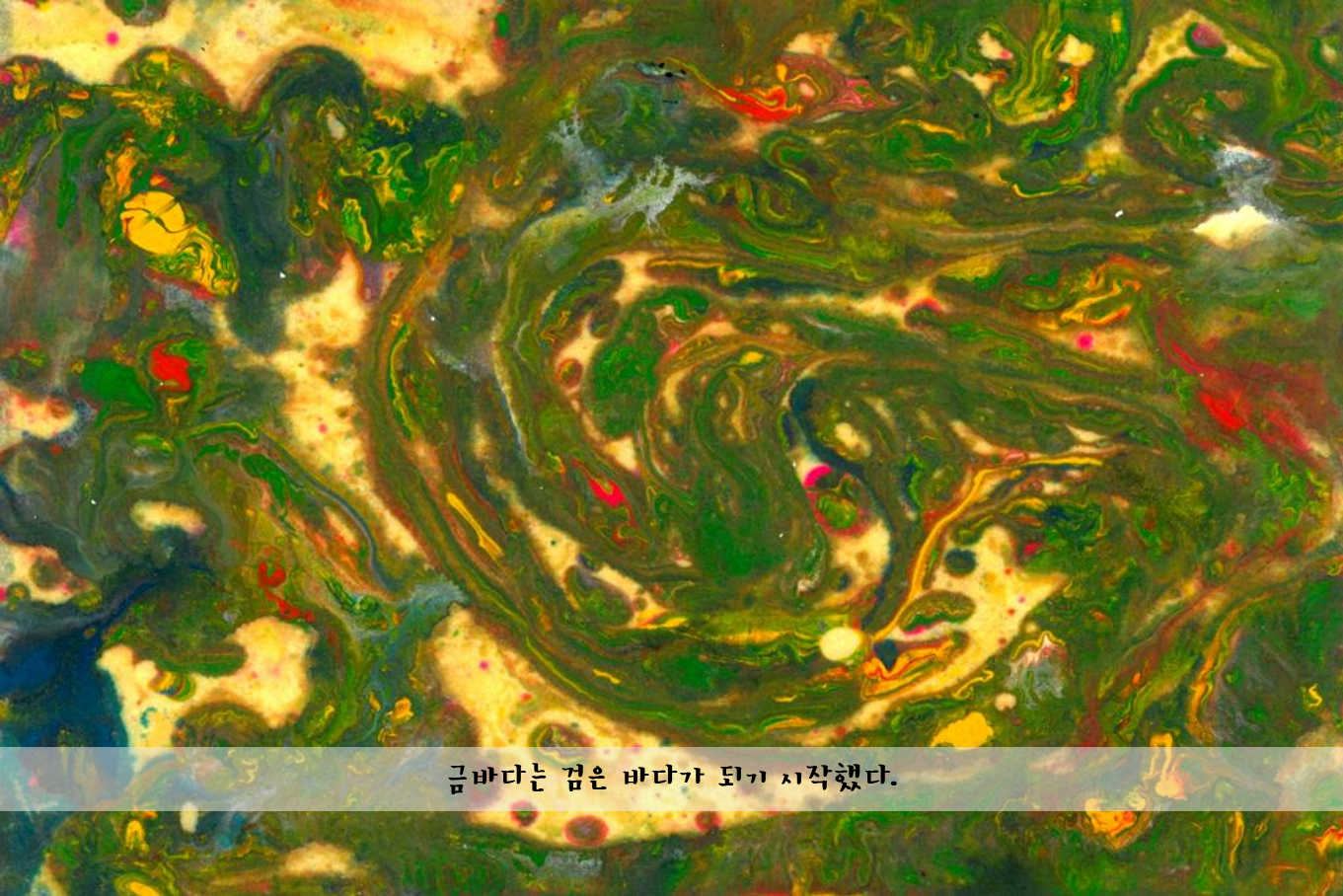
그 낮설고 끈적한 것은 물고기와 조개들을 뒤덮기 시작했다.



“내 몸을 뒤덮는 이걸 대체 뭘까? 답답하고 냄새가 너무 지독해...”



더 이상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없어진 물고기들은 죽고 말았다. 그 시체가 여기저기 뚱뚱 떠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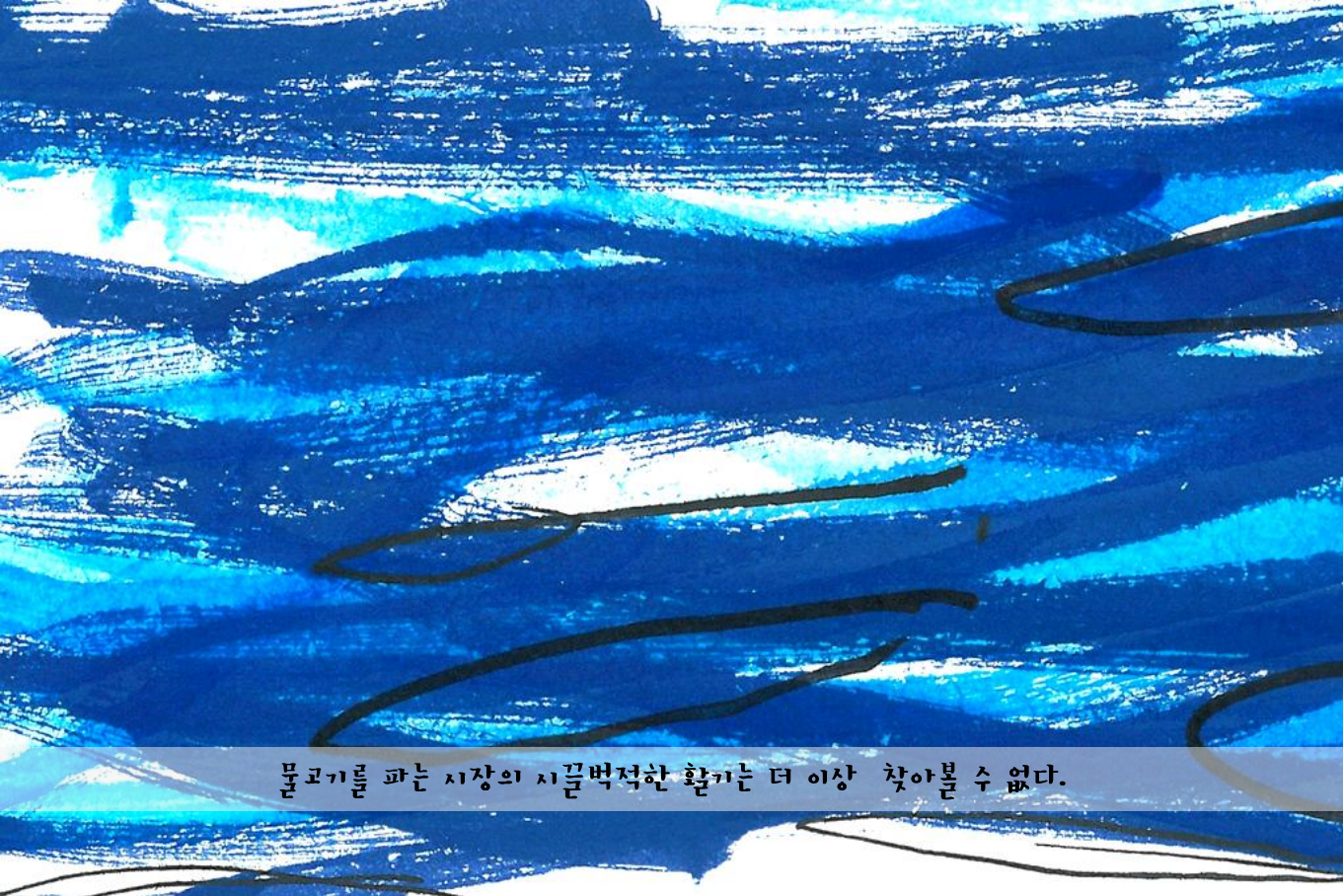


금바다는 검은 바다가 되기 시작했다.





곧 까는 소리는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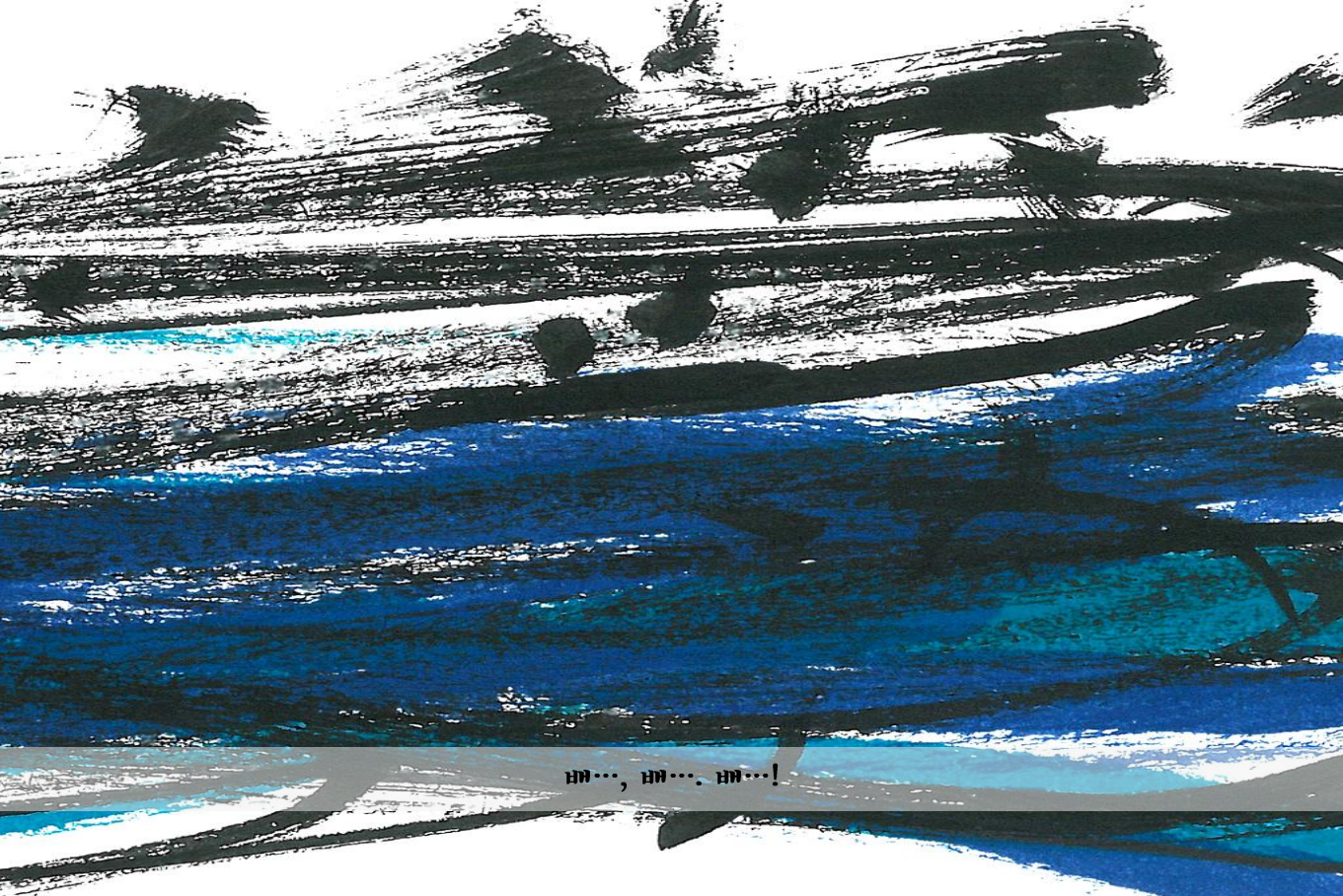
물고기를 파는 시장의 시끌벅적한 활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고깃배는 고기잡이를 멈추었다. 대신 까만 기름 덩어리를 건져내고 닦는 일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매달렸다.



배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다고 했다. 기름을 싣고 가던 배 ‘허베이 스피리트호’




ဟဟ... ဟဟ... ဟ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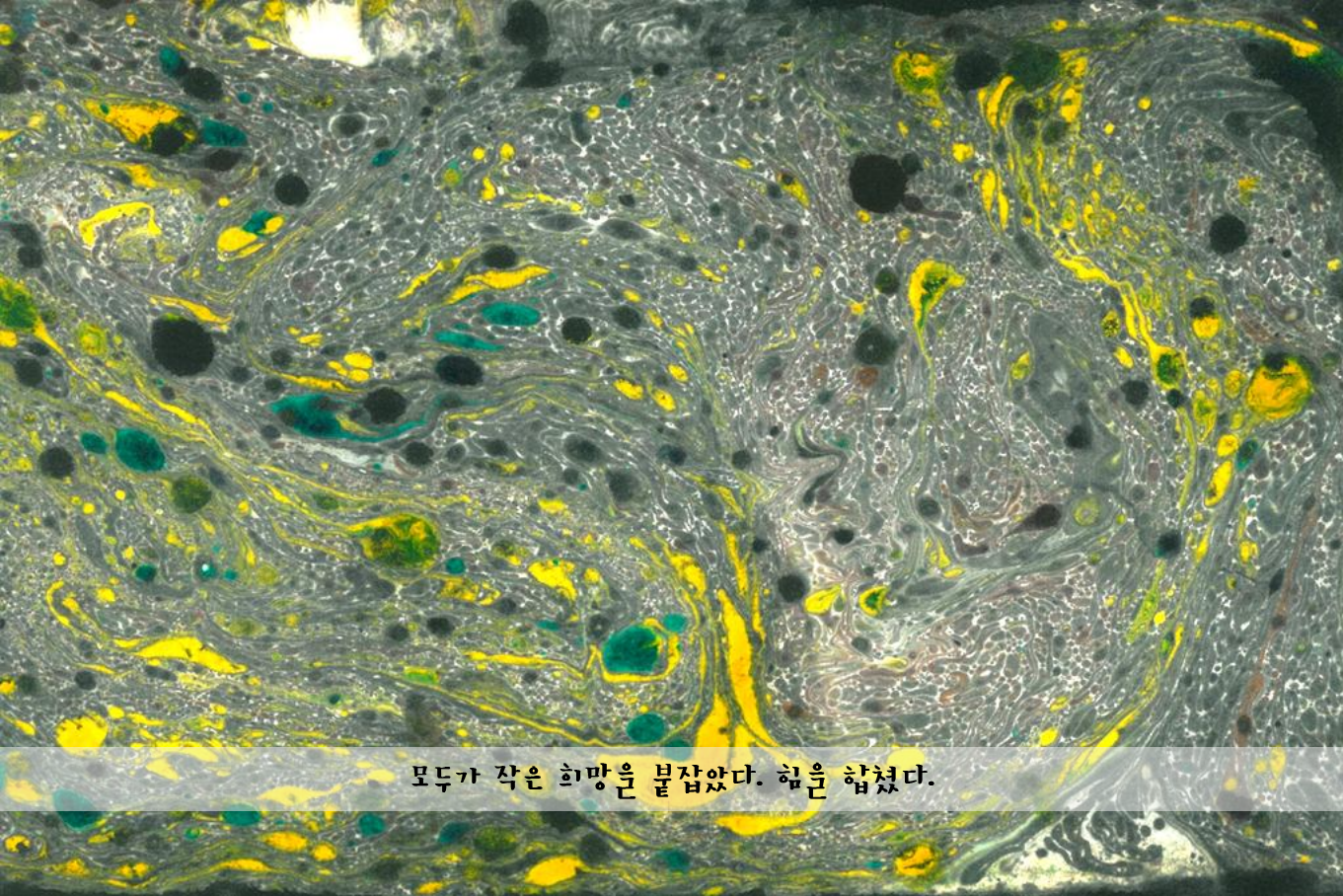
배를 타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 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배가 미친 듯이 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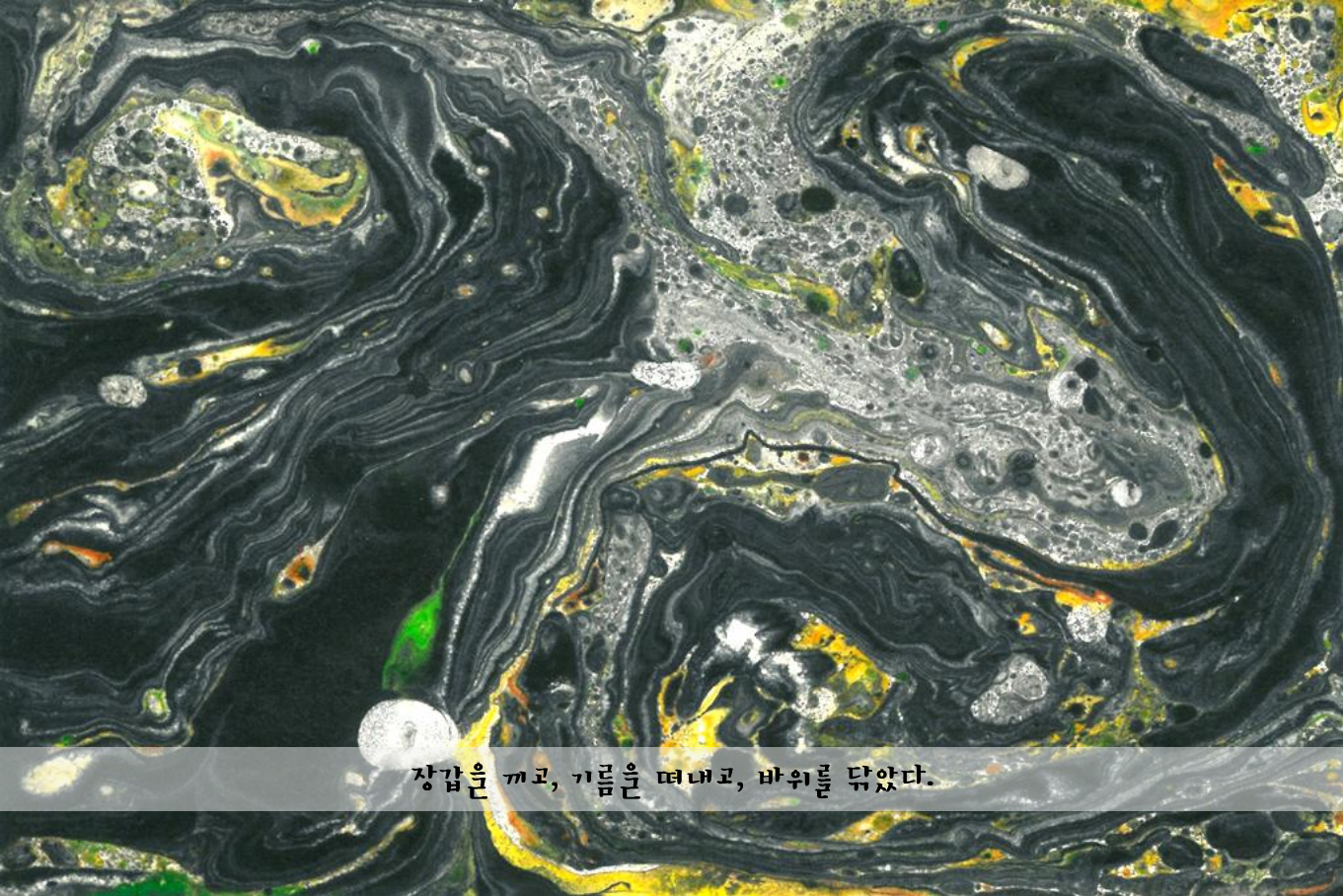
전국의 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직 바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금빛을 지키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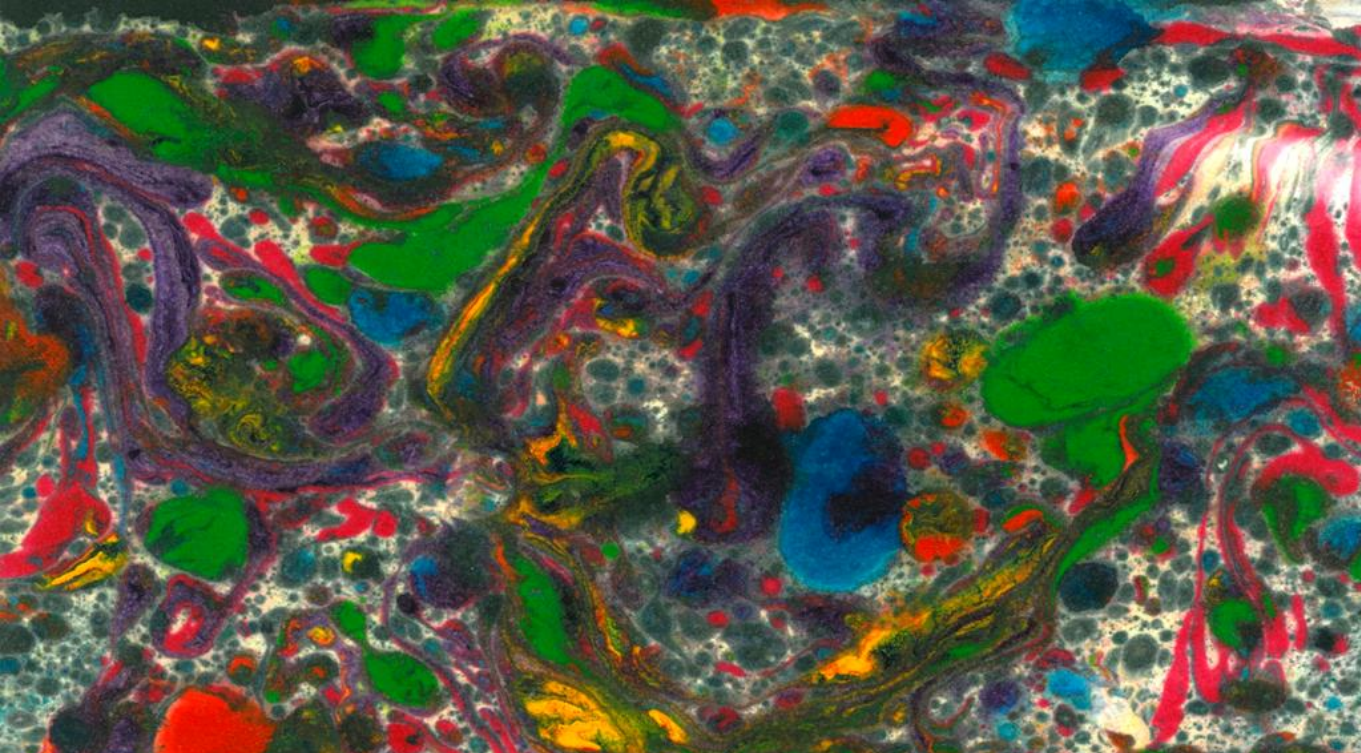
“이 무시무시한 검은 바다도 회복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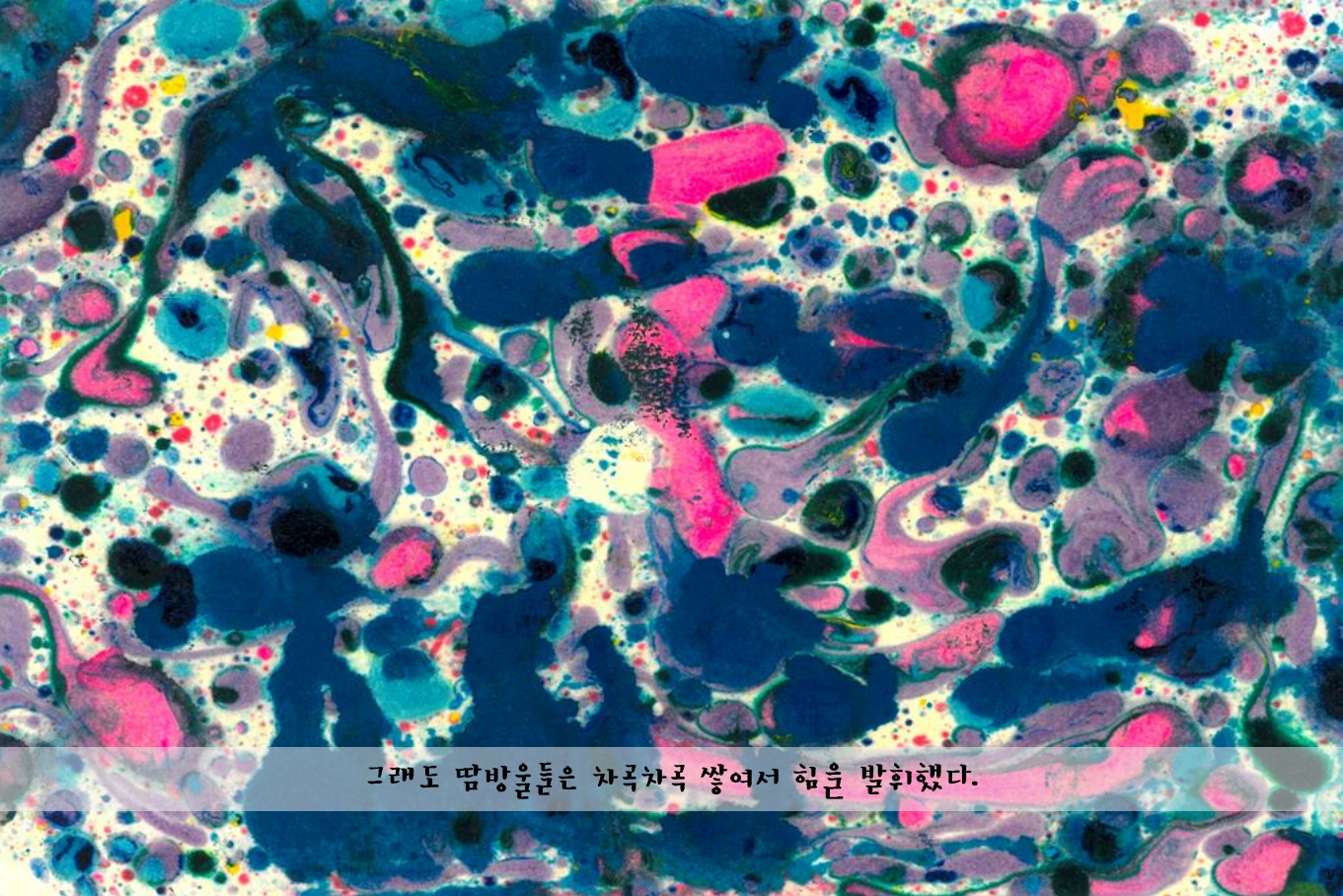
모두가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힘을 합쳤다.



장갑은 깨고, 기름은 떠내고, 바위를 닦았다.



기름은 닦아도 또 닦아도 끝이 없었다. 한번 쏟아진 기름은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그래도 땀방울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힘을 발휘했다.



마침내, 다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러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검은 바다의 눈물[전자자료] / 지은이: 김민경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7

전자책 책

ISBN 979-11-87790-26-6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75810



9 791198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